



여론연구센터
아산 데일리 폴 조사결과 요약

| 한중 정상회담/각국 정상 호감도/최저임금 평가 |

2013년 7월 1일(월) ~ 7월 15일(월)

김지윤 연구위원

강충구 연구원

이의철 연구원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발표일 직전 3일,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
예) 5월 4일 수치: 5월 1~3일 조사결과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3일 순환평균(3-day rolling average)이란?

주요 정치사회 지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일 발표하기 위해 실사(data gathering)를 3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이다. 실사와 자료발표의 순환이 3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발표되는 정치사회 지표는 직전 3일간 조사된 결과를 의미한다.

자료 인용 시 반드시 출처(아산정책연구원 '아산 데일리 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보고서는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강충구 연구원 (02) 3701-7343, ckkang@asaninst.org
| 이의철 연구원 (02) 3701-7337, eclee@asaninst.org

- ▶ **한중 정상회담 평가:** 긍정적 평가 75.7%, 부정적 평가 10.5%
- ▶ **국가 호감도 평균** (10점 만점, 괄호 안은 5월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변동된 수치임)
: 미국 5.61(0.13 ↓) > 중국 4.92(0.7 ↑) > 일본 2.96(0.03 ↑) > 북한 2.27(0.2 ↑)
- ▶ **한중 관계 평가:** 협력관계 62.5%, 경쟁관계 28.7%
- ▶ **한중 관계 주요이슈:** 북핵 해결 37.2%, 한반도 통일 협력 20.6%, FTA 등 경제협력 20.1%
- ▶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국가** (자유응답)
: 북한 47.1%, 중국 18.0%, 일본 14.5%, 미국 9.5%
- ▶ **국가 신뢰도 평가** (해당 국가를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 미국 57.3%, 유럽연합 48.0%, 중국 31.7%, 일본 11.4%, 이란 6.1%, 북한 5.6%
- ▶ **국가수장 호감도 평균** (0점: 전혀 호감 없음, 5점: 보통, 10점: 매우 호감 있음)
: 오바마 대통령 6.29, 시진핑 주석 5.35, 아베 총리 1.65, 김정은 위원장 1.14
- ▶ **한국사회 주요 이슈:** 일자리 창출(33.2%) > 경제 민주화(18.5%) > 남북관계 및 안보(16.2%) > 소득재분배(11.3%)
- ▶ **7월 1·2주차 국가안보 부정적 평가 평균:** 43.9%로 5월 이후 계속 하락 중
- ▶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성 평가:** 올려야 한다 68.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25.6%, 내려야 한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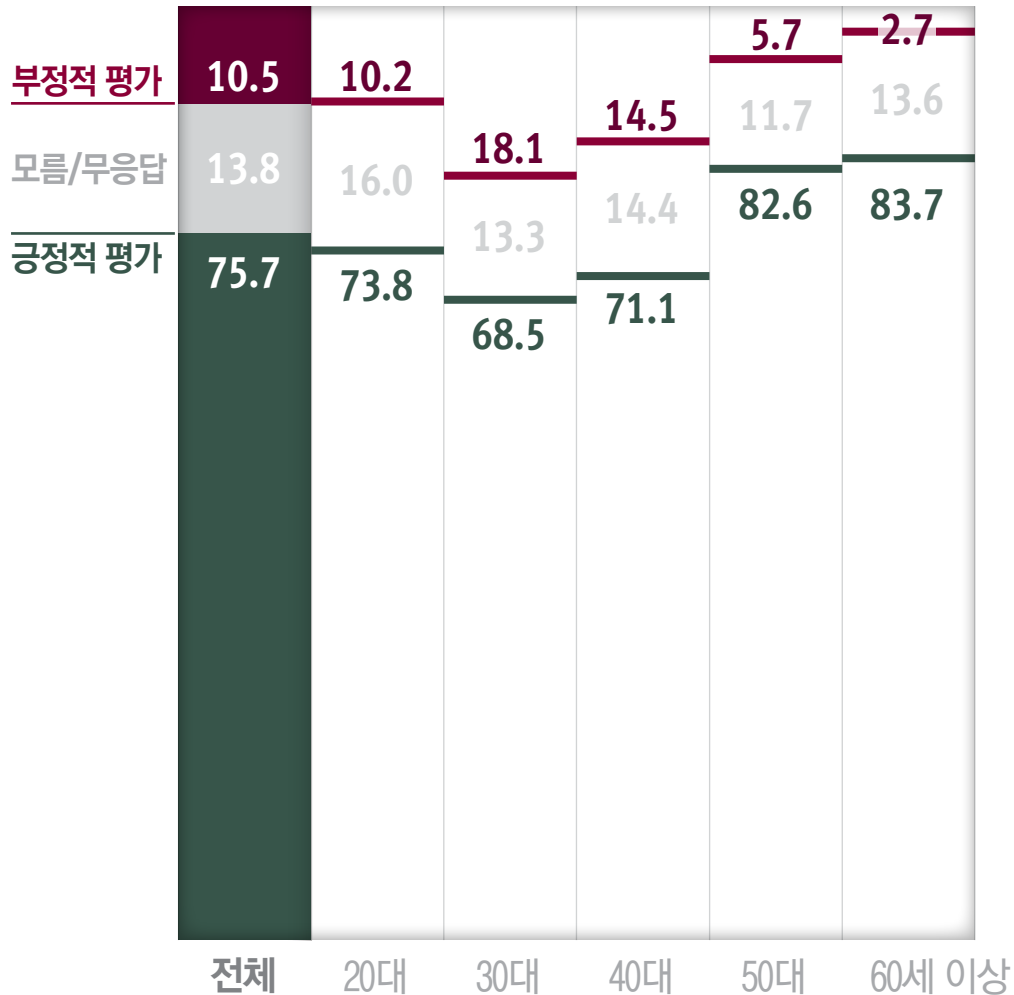
- 7월 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 비핵화 촉구 의장성명 채택*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및 국정조사 시작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착수
6월 임시국회 마감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프랜차이즈법, 일감몰아주기법 등 경제민주화법,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 등 통과
- 7월 3일** 남북, 판문점 직통라인 재가동
이집트 군부 쿠데타 발발, 무르시 대통령 축출*
- 7월 4일**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 개최 합의
정부,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인선
- 7월 5일** 정부, 동아시아축구대회 참가 위한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 방한 승인
- 7월 6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 7월 7일** 남북, 실무회담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 7월 10일**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제의
- 7월 15일** 남북, 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
여야, NLL 회의록 예비 열람 진행

***연구원 관련 출간물** 이슈브리프 61. Middle East Q&A: Egypt's 2013 Coup and the Demise of Democracy
이슈브리프 63. 제 20차 ARF평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역 전략 경쟁 완화



조사기간 7월 1~3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박근혜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상당수의 국민은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5.7%였고, 잘못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10.5%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대선 이래로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이 되어 온 5060세대에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한층 높게 나타났다. 50대의 82.6%, 60세 이상의 83.7%가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안보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20대가 50대와 60세 이상 다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73.8%), 연령대별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래프는 U자형 모형을 띠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방중회담을 통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토대를 세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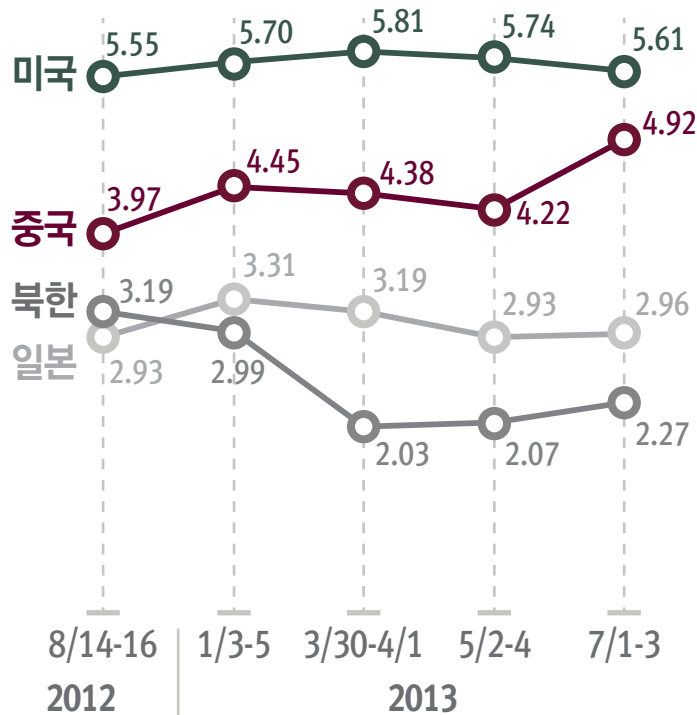
다수의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는 점과 한중 FTA 진전에 합의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측에 북핵 불용이 아닌 유관 핵무기 개발 경계를 합의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¹⁾

1)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정책적 함의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62호 『실익을 챙긴 중국과 장기적 포석을 둔 한국:한-중 정상회담의 평가』 참조



조사기간 7월 1~3일, 단위(11점 척도)

"전혀 호감이 없다"를 0, "보통이다"를 5, "매우 호감이 있다"를 10으로 했을 때, [미국/중국/일본/북한]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갖고 계십니까?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중국 호감도 변화 (7월-5월 비교)

		5/2-4(A)	7/1-3(B)	(B-A)
전체		4.22	4.92	0.70
성별	남성	4.16	5.06	0.90
	여성	4.28	4.77	0.49
연령대	20대	3.89	4.17	0.29
	30대	3.90	4.30	0.40
	40대	4.26	4.88	0.62
	50대	4.51	5.57	1.06
	60세 이상	4.58	5.83	1.25
학력	중졸 이하	4.26	5.24	0.98
	고졸	4.25	5.21	0.96
	대재 이상	4.18	4.70	0.52
지지정당	새누리당	4.33	5.36	1.03
	민주당	4.27	4.92	0.65
	무당파	3.86	4.31	0.45

주변국가 호감도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눈에 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3.97이었는데, 1년 사이 4.92점으로 무려 1점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아무래도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단기 이슈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일본,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 3월 이후 소폭의 등락만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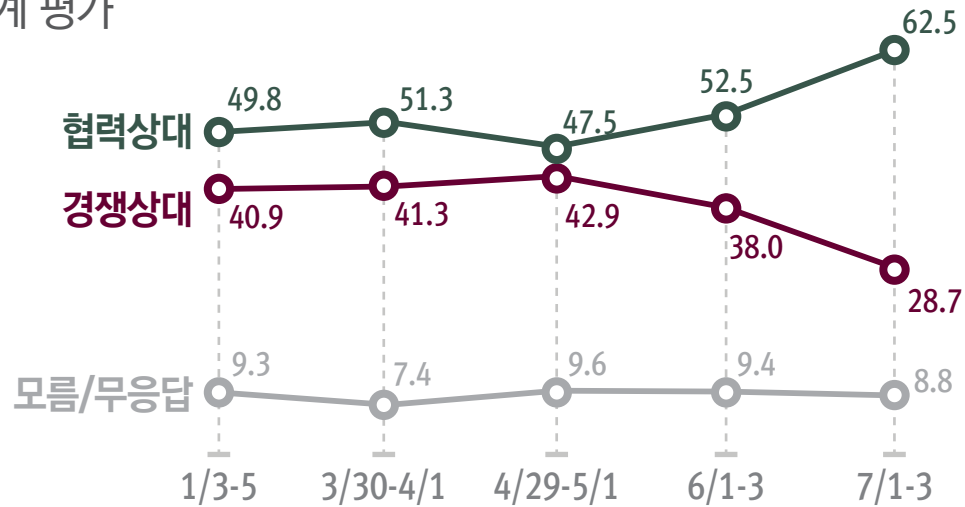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응답자에서 고르게 상승했지만, 특히 남성, 50대, 60대 이상, 고졸 이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응답자 특성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특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통계검정 결과에서도 대통령 지지층의 중국 호감도 상승이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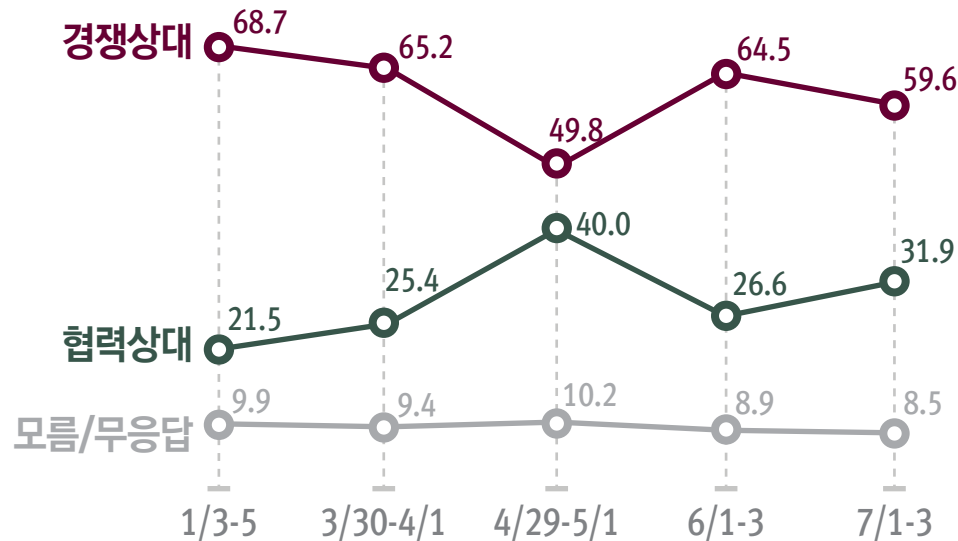
조사기간 7월 1~3일, 단위 (%)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와 중국/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중 관계 평가



| 미중 관계 평가



한국인은 최근 한중 관계가 협력관계로 선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한중 관계를 협력대상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40% 후반에서 50% 초반 사이에 머물렀으나, 7월에는 62.5%로 지난달에 비해 10% 포인트 상승하며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관계 평가 역시 앞서 언급한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단기 이슈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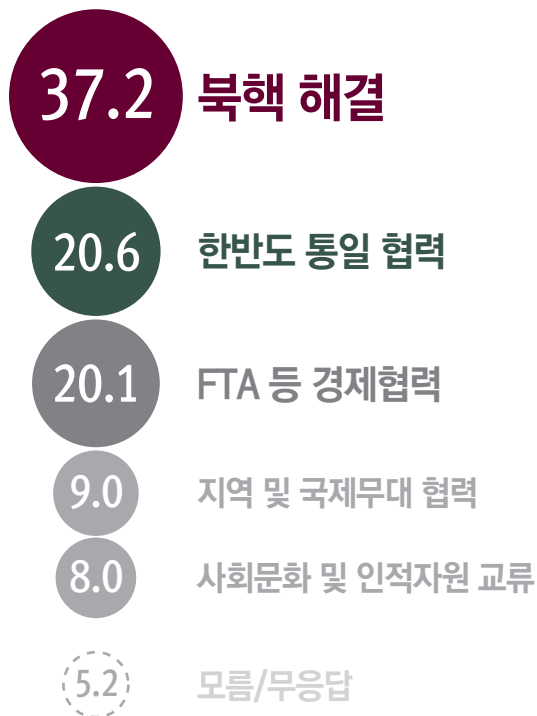
미중 관계 평가 역시 단기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보면 40.0%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관계라고 답했다. 이는 2012 아산 연례조사(협력 대상: 18.8%, 경쟁 대상: 81.2%)와 4월 이전의 데일리 폴 조사 결과에서 대부분의 국민이 미국과 중국을 협력관계보다는 경쟁관계로 봤던 것에 비하면 큰 인식의 변화였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고조된 동북아 지역에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UN 등 서구사회와 전에 없던 공조를 보이며 북한을 압박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 변화를 통해 미중 관계에 대한 평가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월과 7월 조사에서는 미중 관계가 협력 관계라는 응답은 20%중반과 30%초반 사이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미중 공조 체제가 미중 관계 평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효과는 단발성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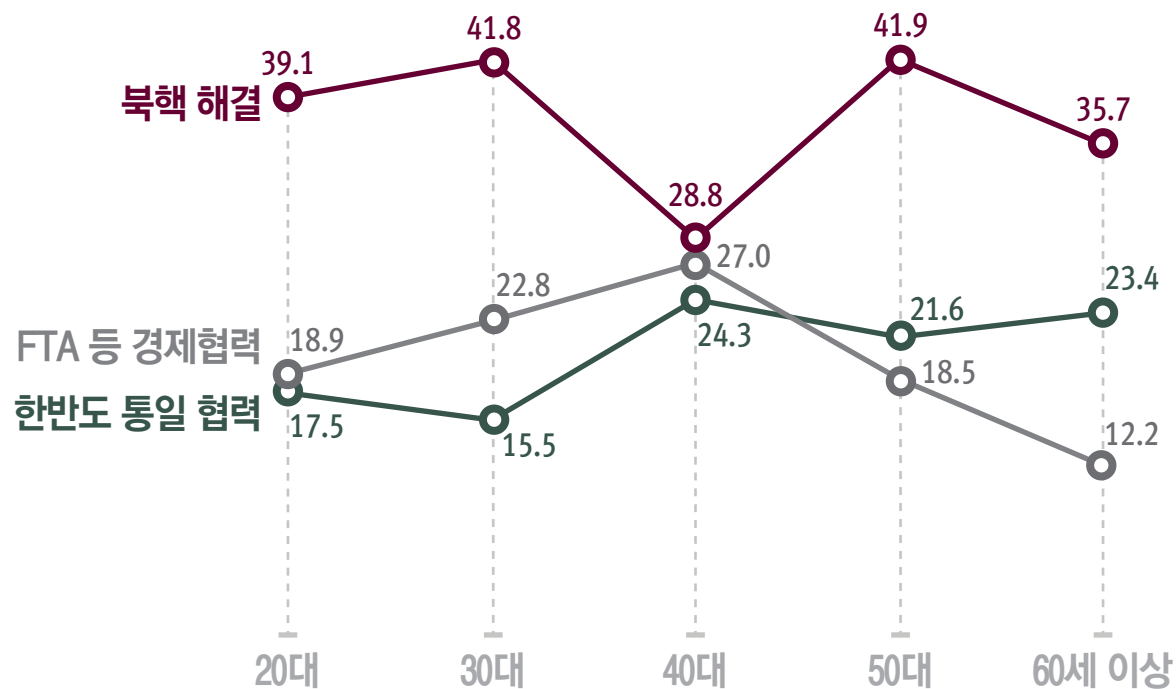
조사기간 7월 1~3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의 사안들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 연령대별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의 대중 정책 노선의 향방이 주목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은 한중간에 북핵 해결(37.2%)과 한반도 통일 협력(20.6%) 및 경제협력(20.1%)이 중요한 이슈라고 답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북한 문제 처리에 있어 우리 나라와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일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과 5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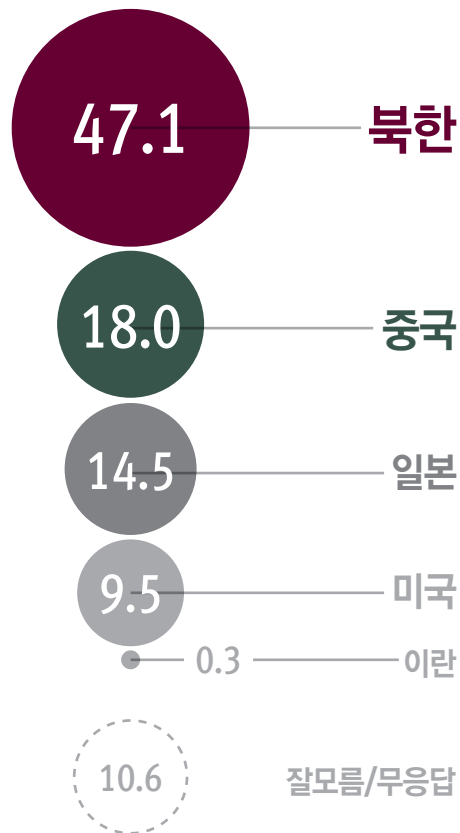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슈는 달랐다.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층에서는 FTA 등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한반도 통일 협력이 북핵 해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다르다는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기간 7월 4~6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이해관계를 잘 따져봐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에 위협이 될 국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어느 국가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국가를 제시문 없이 자유롭게 답하게 한 결과, 우리 국민은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47.1%), 중국(18.0%), 일본(14.5%), 미국(9.5%)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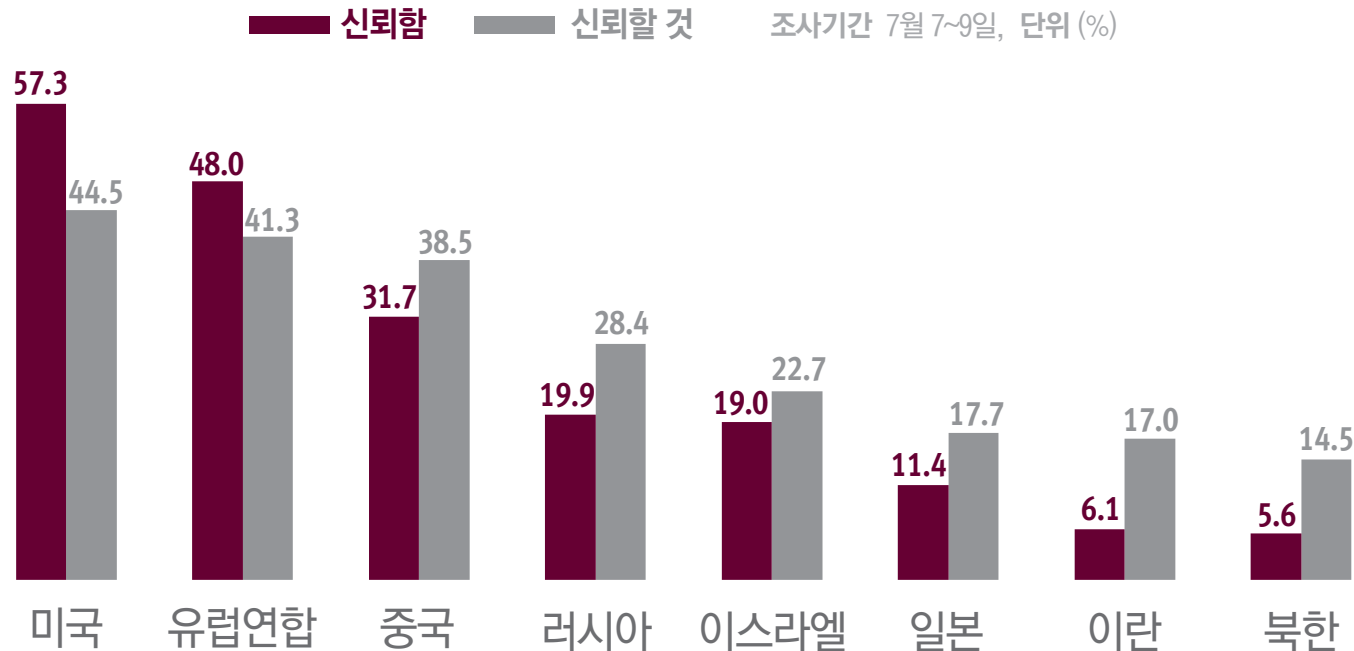
과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답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지난 6월, 주변국의 위협 평가에서도 북한이 우리 나라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1.4%가 동의했다(중국 59.7%, 일본 55.9%, 미국 33.5%).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올해 2월의 3차 핵실험, 4월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한층 고조되며 많은 한국인이 북한을 제1의 안보 위협으로 여기게 했다. 중국은 북한의 뒤를 이어 한국인에게 위협이 되는 국가로 지목 받았다. 다만 한국인이 중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지점은 북한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최근 군사, 경제적 부상을 거듭하며 미국과 '신형대국관계 전략'을 논하는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 위협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위협을 느낀다는 비율이 60.7%로 높게 나타난 지난 6월의 데일리 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손꼽힌 국가는 일본(14.5%)이었다. 일본은 성노예(위안부) 사과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논쟁 등 과거사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뽑힌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열 명 중 한 명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봤다.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국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신뢰하고, 일본, 이란, 북한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은 결과, 우리 국민의 57.3%가 미국을, 48.0%가 유럽연합을 신뢰한다고 했다. 중국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31.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는 러시아(19.9%)와 이스라엘(19.0%)이 있었다. 일본(11.4%), 이란(6.1%), 북한(5.6%)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굉장히 낮았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신뢰도 순위는 국가호감도 순위와 동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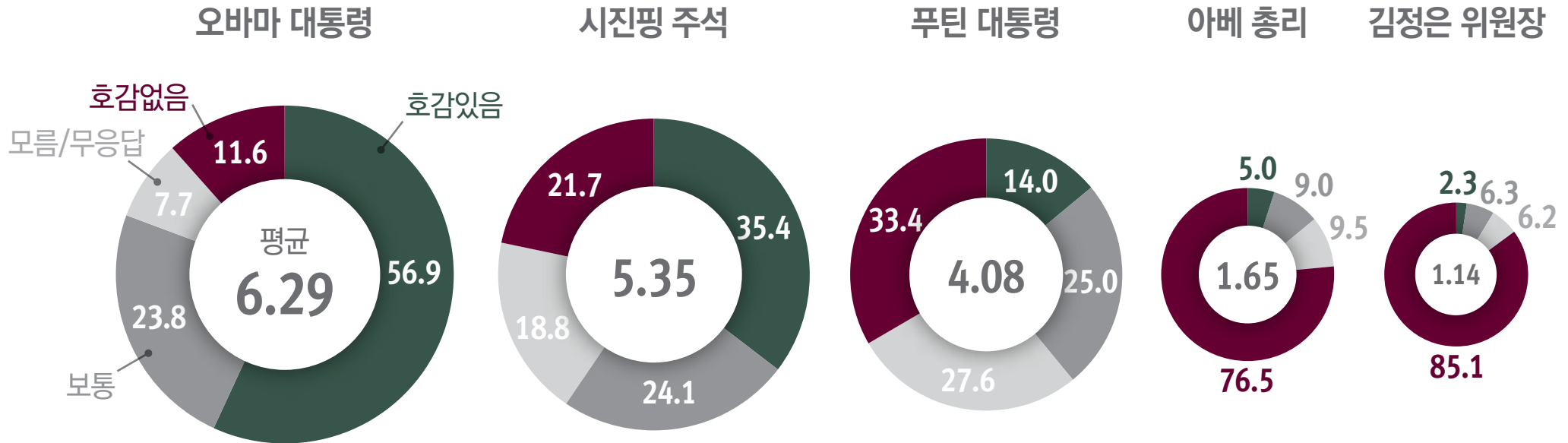
나타났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많은 이해관계가 없는 러시아와 이스라엘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목 받았다. 한일 양국간 역사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다. 단기간에 한일 양국간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예상하게 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과 유럽연합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국을 신뢰하는 것 만큼 우리나라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조사기간 7월 10~12일, 11점 척도/단위 (%)

선생님께서 [각국 수장]에 대해 얼마나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0~4점 : 호감없음, 5점 : 보통, 6~10점 : 호감 있음



각국을 대표하는 정부 수장 호감도를 비교해봤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보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도 대체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약한 비호감을 보였다. 일본의 아베 총리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강한 비호감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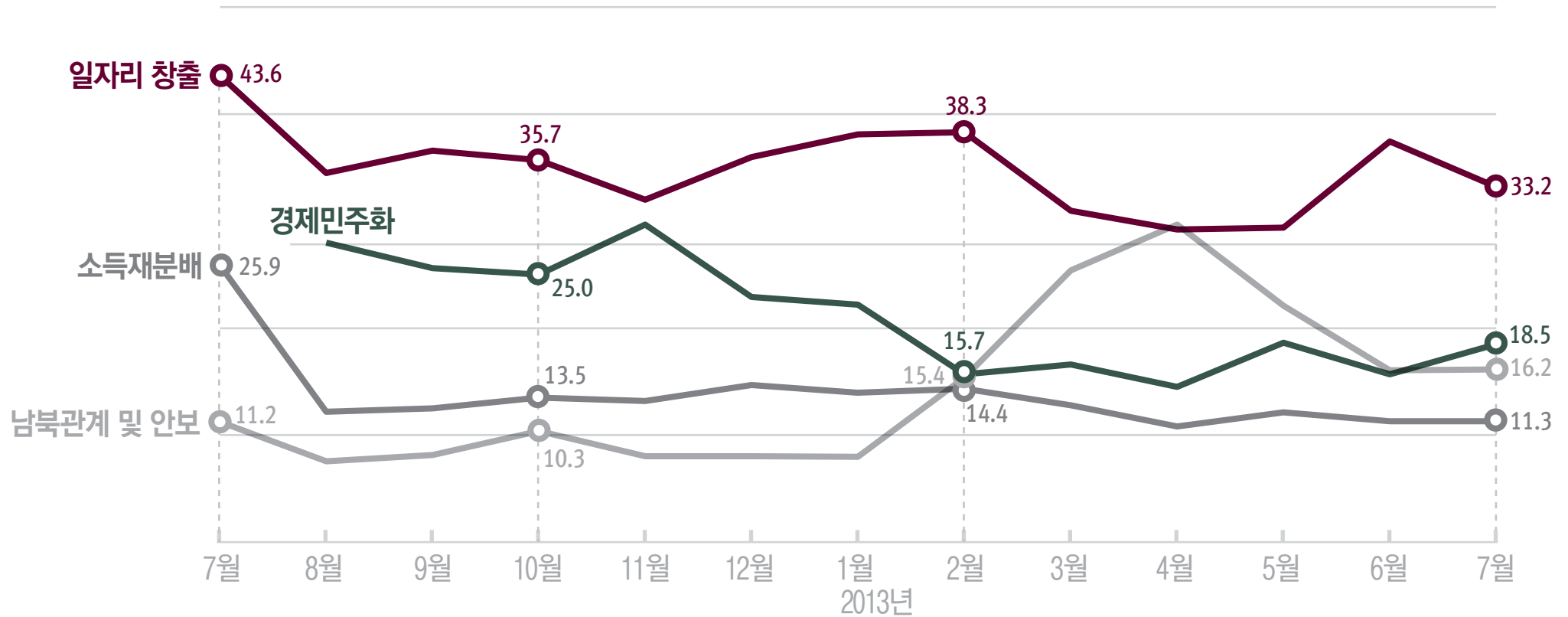
5점(보통)을 기준으로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로 각국 수장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평균 6.29점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경우 5.35점으로 조사 대상 중 두 번째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중 정상회담에 의한 단기성 호감도 상승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1.65점, 1.14점으로 전혀 호감 없음인 0점에 가깝게 나타났다. 7월 1일에서 3일에 실시된 조사에서 일본과 북한에 대한 국가 호감도는 각각 2.96점과 2.27점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양 국가 정상에 대한 호감도가 국가 호감도보다 1점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인은 일본과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를 통합하여 평가하는 국가 호감도보다, 두 국가의 수장만을 평가하는 국가수장 호감도에 있어 더 큰 비호감을 보였다.



조사기간 7월 13~15일, 단위 (%)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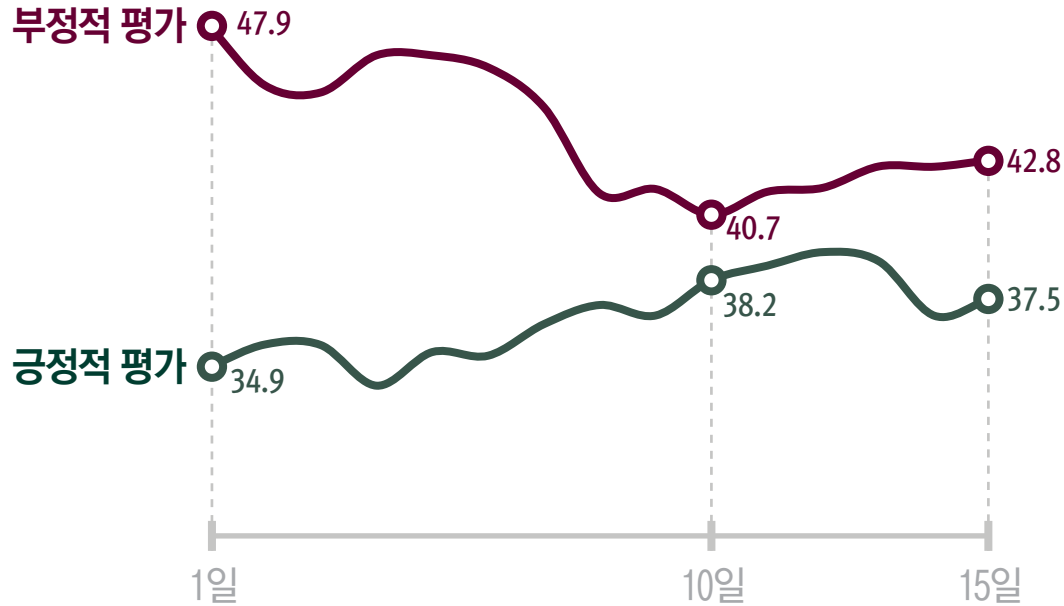
이번 달, 한국사회 주요이슈는 일자리 창출(33.2%), 경제 민주화(18.5%), 남북관계 및 안보(16.2%), 소득재분배(11.3%), 교육문제(9.9%), 민주주의 발전(5.0%)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이슈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남북관계 및 안보 이슈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7월 초에 마감된 6월 임시국회에서는 프랜차이즈법, 일감몰아주기법 등의 경제민주화법이 입안됐다. 여전히 일자리 창출 등 경제관련 이슈가 한국인의 높은 관심을 받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6-7월 내내 NLL 논란 및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정쟁에 매달리며 다수 언론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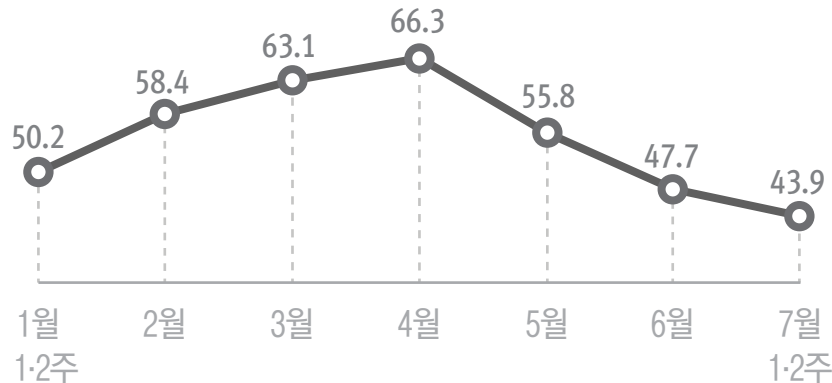


조사기간 7월 1~15일, 단위 (%)

선생님께서서는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 월별 국가안보 부정적 평가 평균



북한 발 안보위협이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 흐려져 가며, 국가 안보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 인식도 함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7월 1일 국가안보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국인의 비율은 47.9%였고, 이 비율은 점점 하락하여 10일에는 40.7%까지 내려갔다. 15일에는 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2.8%,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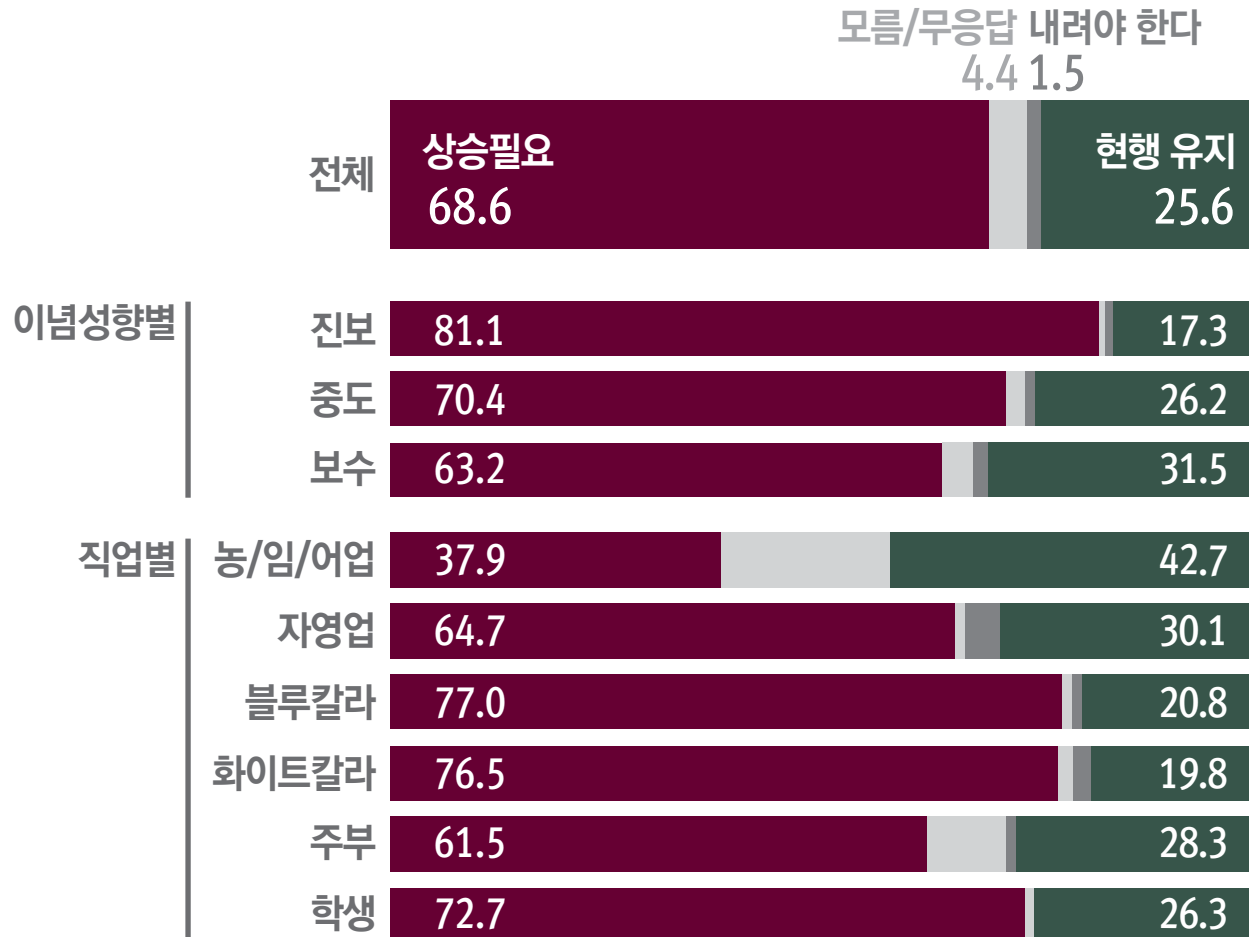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월별 평균치로 살펴보면, 국가안보에 대해 위협을 느낀 한국인의 비율이 지난 4월 66.3%로 최고조에 이른 후 5월부터 7월 1·2주차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7월 10~12일, 단위 (%)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름/무응답 내려야 한다
4.4 1.5



이번 달 국내정치 이슈로 지난 5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성 평가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노동계 및 경영계의 합의 없이 위원회 위원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7.2%)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5.21%에 비해 1.99% 높은 수치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68.6%,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25.6%, 내려야 한다는 입장은 1.5%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조사 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조사 결과에서는 인상 필요 64.7%, 현행유지 30.1%로 다른 직업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농/임/어업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42.7%)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